

研究論文

# 서재필과 번역\*

김 옥 동\*\*

---

I. 머리말	V. 서재필의 한국어 구사력과 번역투 문장
II. 번역가로서의 서재필	VI. 맺는말
III. 번역에 대한 서재필의 태도	<참고문헌>
IV. 서재필의 의역 선호	<국문요약>

---

## I. 머리말

송재(松齋) 서재필(徐載弼)이 개화기나 근대 계몽기 선각자로서 이룩한 업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이 신문에서 처음으로 국문(한글)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일이었다. 물론 《독립신문》보다 10년 앞서 1886년에 《한성주보》가 일찍이 국한문과 국문으로 기사를 썼고, 《독립신문》보다 1년 앞서 1895년에는 일본인이 발행한 《한성신보》가 국한문 혼용과 일본어로 기사를 편집하였다. 그러나 전자는 관보의 성격이 짙고, 후자 또한 일본 외무성의 보조금을 받아 서울에서 발행하던 신문으로 한국 최초의 민간 신문이라고 할 《독립신문》과는 여러모로 달랐다.

이렇게 한민족의 열이 담긴 한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기울인 서재필은 또한 한글을 사용하면서 빈칸 띄어쓰기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번역학 전공(wdykim@gmail.com).

그 이전에는 어쩌다 한글 옆에 점을 찍어 띄어쓰기를 대신하였을 뿐 빈칸을 사용하여 띄어쓰기를 한 적이 없었다. 이 무렵 서재필은 그를 도와 신문을 만든 주시경(周時經)과 함께 한글을 널리 알리고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데 견인차 역할을 맡았다. 이 점과 관련하여 이기문(李基文)은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하고 그 뒤에 조금씩 뿌리를 내려왔지만, 이것을 진정한 민족의 문자로 만든 개혁 운동의 첫 봉화를 올린 것은 서재필이었다”<sup>1)</sup>고 높이 평가한다.

서재필은 이렇게 한글에 깊은 관심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번역에 대해서도 적잖이 관심을 기울였다. 다만 학자들이 그의 한글 표기와 띄어쓰기 주장에만 주목해 온 나머지 번역을 둘러싼 문제는 그 동안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였을 뿐이다. 서재필이 직접 한글로 쓴 논설과 영문으로 집필한 글을 좀 더 꼼꼼히 읽어 보면 그는 곳곳에서 한글 표기와 띄어쓰기 못지않게 번역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음이 드러난다. 또한 그의 번역에 관한 언급에서는 그 나름대로 중요한 번역 이론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서재필은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번역의 중요성을 간파한 선각자 중 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번역의 방법론을 제시한 한국 최초의 이론가로 간주하여도 크게 틀리지 않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번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 서재필과 번역에 관한 연구는 자못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 II. 번역가로서의 서재필

서재필이 번역에 처음 관심을 기울인 것은 1883년 김옥균(金玉均)의 권유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면서부터였다. 일본에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경영하는 게이오의숙(慶應義塾)에서 여섯 달 동안 일본어를 배운 뒤 서재필은 도쿄에 있는 토야마(戸山)육군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하여 1년 동안 기초적인 군사학을 익혔다. 갑신정변이 실패한 뒤 일본에 망명한 서재필은 잠시 요코하마(横浜)에 머물 때 미국인 선교사 헨리 루미스(Henry Loomis)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다. 루미스는 미

1) 이기문, 『《독립신문》과 한글 문화』, 현종민(편), 『서재필과 한국 민주주의』(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46~66쪽.

국성서공회의 대표로 이 무렵 성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이수정(李樹廷)이 일본에서 번역하고 있던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1885)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서재필은 번역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이다.

더구나 서재필이 번역의 중요성을 좀 더 깊이 깨닫기 시작한 것은 흔히 ‘일본의 볼테르’로 일컫는 일본의 대표적인 계몽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한테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받으면서부터이다. 특히 후쿠자와는 서양의 저서를 많이 번역하였고, 그가 집필한 많은 저서도 독창적인 저술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서구 서적을 변안하거나 번역해 놓은 것에 가까웠다. 이처럼 후쿠자와는 누구보다도 메이지(明治) 시대 일본 근대화의 동력으로 번역에 크게 의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서재필이 번역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889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스물다섯 살 때이다.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간 뒤 일본에 망명하던 그는 박영효(朴泳孝)·서광범(徐光範)과 함께 미국에 건너가 미국인 실업가 존 홀렌백(John Hollenback)의 도움으로 펜실베이니아 주 해리 힐먼 아카데미를 졸업하였다. 그러나 홀렌백한테서 더 이상 재정적 후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그는 워싱턴 소재 미육군 군의감 도서관의 사서로 취직하였다. 서재필은 이곳에서 중국과 일본에서 들어온 의학 서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과 함께 또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맡았다.<sup>2)</sup>

그런데 서재필이 이러한 작업을 수월하게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타고난 언어 능력 때문이었다. 이즈음 번역학에서 흔히 ‘목표 언어(target language)’라고 말하는 영어에 대해서 그는 이미 상당한 실력을 쌓고 있었다. 해리 힐먼 아카데미를 졸업할 때 학생대표로 영어 연설을 할 정도였고, 라틴어와 희랍어에도 특출한 재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서재필은 ‘기점 언어(source language)’인 중국어와 일본어에 대해서도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그는 한학 실력이 아주 뛰어나 대어섯 살 때 『천자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동몽선습』까지 마쳤다. 열여덟 살의 젊은 나이로 고종 19년(1882)에 있는 별시에서 문과에 장

2) 이 무렵 서재필의 먼 친척뻘로 가까이 지낸 것으로 알려진 서광범(徐光範)이 워싱턴에서 서재필 비슷한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존 언더우드(John Underwood)의 도움으로 뉴저지 주 럿거스 대학에 다니던 서광범은 1988년에 워싱턴으로 옮겨와 스미소니언박물관 민족학부에서 번역 일을 하면서 연방정부 교육국의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정식, 『구한말의 개혁·독립투사 서재필』(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110~111쪽.

원으로 급제할 만큼 그의 한학 실력은 탁월하였다. 과거에 합격한 뒤 그가 맡은 직책은 교서관(校書館) 부정자(副正字)로 정자(正字)를 보좌하여 전적과 경서를 인쇄하고 문장의 교정을 담당하는 임무였다. 이러한 일은 간접적이거나 번역과 관련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서재필은 한문에 능통하고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군위참모부 도서관에서 번역 일을 하는 데 적임자였을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군의감 도서관이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서재필은 공무원 시험을 통과해야 하였다는 점이다. 이때 중국어 시험에는 한역 신약성서 「누가복음」 10장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었고, 일본어 시험에는 일역 신약성서 「요한복음」 15장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었다. 미국에 도착한 뒤부터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외우던” 서재필은 쉽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재필의 자서전을 집필한 김도태(金道泰)는 “한문은 어렸을 때에 이미 시전(詩傳), 서전(書典), 주역(周易) 등을 배워 과거까지 급제하였은즉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본어도 동경 토야마학교 시대에 보통 글로는 못 보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만만하던 차에, 더구나 문제가 그것이며 [그가] 채용될 것은 벌써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sup>3)</sup>고 지적한다.

서재필이 한문과 일본어로 쓰인 의학 서적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맡았다면, 그로부터 30년 뒤에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기도 한다. 1919년 3월 고국에서 기미독립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재미 한인 동포들은 서재필의 주도로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 모여 제1차 한인연합대회(First Korean Congress)를 개최하였다. 한인 대표와 학생 150여 명을 비롯하여 그 지방의 미국인 유지 몇 사람과 한국에 다녀온 미국 선교사들이 참석한 이 대회에서 우남(雲南) 이승만(李承晩)이 영어로 번역한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 그런데 이 영문 독립선언서는 다름아닌 서재필이 번역한 것이었다.<sup>4)</sup>

3) 김도태, 『서재필 박사 자서전』(을유문화사, 1972), 189쪽. 김도태가 집필하였으면서도 ‘자서전’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그 일부 내용을 서재필의 구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 내용도 서재필 자신이 김도태에 직접 밝힌 내용일 것이다.

4) 기미 독립선언서의 영문 번역은 상하이에서 춘원(春園) 이광수(李光洙)가 번역하여 영자 신문에 실었고, 1930년대 초엽부터 뉴욕 대학교에서 비교 문학과 동양 문화를 가르치던 강용힐(姜鏞訖, Younghill Kang)이 독립선언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자신의 처녀 장편 소설 『초당』(1931)에 삽입하였다.

### III. 번역에 대한 서재필의 태도

군의감 도서관에서 8개월 동안 번역에 종사해 온 서재필은 누구보다도 번역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았다. 이 무렵 이 도서관에는 한문과 일본어로 출간한 의학 서적이 무려 5천여 권이나 있었다. 비록 서양 의학이 발달하였다고는 하지만 미국 학자들은 동양 의학서에도 적잖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데 서양 학자들은 번역을 통하지 않고서는 동양의 의학을 이해할 수 없었다. 말하자면 영어로 번역되지 않은 동양의 의학 서적은 아무리 훌륭한 내용이 들어 있어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다. 립창영(林昌榮)에 따르면 서재필은 이 무렵 의학 도서를 정리하면서 의학 공부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sup>5)</sup> 또한 이 경험은 서재필이 앞으로 번역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미국에 망명한 뒤 11년 만에 다시 조국에 돌아온 서재필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국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문명개화를 이룩하는데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깊이 깨닫고 있었다. 그리하여 1896년 4월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제2권 제92호 논설에서 그는 근대화를 앞당기는 지름길로 외국 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 조선에 데일 급선무는 교혹인데 교혹을 식히려면 남의 나라 글과 말을 배훈 후에 학문을 가치라 하거드면 교혹할 사람이 몇이 못 될지라. 그런고로 각색 학문 책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가르쳐야 남녀와 빈부가 다 조금식이라도 학문을 배호지 한문을 배화 가지고 한문으로 다른 학문을 배호려 하거드면 국중에 이십여 년 그 노릇할 만한 사람이 몇이 못 될지라. 국문으로 책을 번역하자 하거드면 두 가지 일을 데일 문져 하여야 할 터이라.<sup>6)</sup>

서재필이 민중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교육을 가장 중시하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민중을 교육시키는 수단으로 번

5) Channing Liem, *Philip Jaisohn: The First Korean-American—A Forgotten Hero*(Elkins Park, Pa: Philip Jaisohn Memorial Foundation, 1984), p. 117.

6) 《독립신문》, 제2권 제92호, 1897년 8월 5일자. 맞춤법은 원문 그대로 인용하되 띄어쓰기는 오늘날 기준에 맞게 바꾸었다.

역을 꼽는다. 외국어를 먼저 배운 뒤에 그 외국어로 남의 나라 학문을 배운다는 것이 옳은 순서일 터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소수밖에는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번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서재필은 국문으로 번역한 책이래야 남성과 여성,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가리지 않고 누구나 두루 학문을 익힐 수 있다고 밝힌다.

위 인용문의 맨 마지막 문장도 좀 더 찬찬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서재필은 여기에서 외국 서적을 국문으로 번역하기에 앞서 필요한 두 가지 선행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가 내세우는 선행 조건이란 바로 국문 옥편, 즉 국어사전을 편찬하는 일과 국문을 표기할 때 빈칸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다. 《독립신문》 창간호 논설에서 서재필은 “우리가 독립신문을 오늘 처음으로 출판하는데 조선 속에 있는 내외국 인민의게 우리 주의를 미리 말삼하여 아시게 하노라…모도 언문으로 쓰기는 남녀 상하귀천이 모도 보게 흠이요 또 귀절을 떼어쓰기는 알아보기 쉽도록 함이라”<sup>7)</sup>고 밝힌다. 신문 기사를 언문(국문)으로 써야 남성이나 여성이나 또 상하귀천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듯이,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여야 국문을 읽기 쉽다는 것이다. 이렇듯 서재필은 《독립신문》을 한글로 출간하는 것과 외국 책을 국문으로 번역하는 것을 동일한 차원으로 보았다.

서재필이 번역에 앞서 국어사전을 먼저 편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 번역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어를 표준화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그는 “조선 학부에서 조선 국문 옥편을 만드려 말 쓰는 규칙과 문법을 정하여 전국이 그 옥편을 좇아 말과 글이 갖도록 쓰고 읽게 하며 각색 학문 책을 번역에 이 옥편에 있는 규칙대로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하게 만드는 것이 조선 교혹하는 기초로 우리는 알고…<sup>8)</sup>”라고 밝힌다. 표기법을 표준화하지 않으면 번역가마다 어휘나 용어를 제멋대로 번역하여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서재필이 제시하는 두 가지 선행 조건 중에서 띄어쓰기는 외국 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하는데 필수적으로 볼 수 없을는지 몰라도 국어사전 편찬은 아마 필수적일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이기문은 “19세기에 국어사전의 편찬을 강조하고 그 내용까지 자세히 설명한 서재필의 생각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sup>9)</sup>고 밝힌다.

7) 《독립신문》, 제1권 제1호, 1896년 4월 7일자.

8) 《독립신문》, 제2권 제92호, 1897년 8월 5일자.

물론 이렇게 서구 문헌을 번역함으로써 문명개화를 이룩하고 근대화를 달성하려고 한 사람은 서재필이 처음이 아니었다. 박문국(博文局)에서 발행하던 《한성주보》는 서재필보다 정확히 10년 앞서 1886년 2월 15일자 ‘사의(私議)’라는 고정을 통하여 번역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를 설립하여 의당 언문(諺文)으로 학생들을 교습시켜야 한다. 공맹(孔孟) 성현의 책에서부터 유럽인의 식화술(殖貨術)에 이르기까지 모두 언문으로 번역하여 가르쳐야 한다. …원컨대 요직에 있는 제공들께서는 정부 차원에서 의논하여 특별히 번역하는 기관을 설치, 각종 학과의 기술을 모두 언문으로 해주기 바란다. 그리하여 번역된 책자로 만들어 국내에 반포하여 토민(土民)들로 하여금 이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sup>10)</sup>

위 인용문에서 무엇보다도 눈을 끄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번역하는 기관”을 설치할 것을 주창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굳이 국가 차원에서 번역 기관을 설치할 것을 부르짖는 것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선진국의 문헌을 수집하고 번역하기란 무척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번역이 한 국가에서 차지하는 몫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다.

더구나 위 인용문의 필자는 유가 경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유럽의 문헌도 번역하되 모두 ‘언문’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말할 나위 없이 한문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도 두루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일반 백성이 언문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를 설립하여 마땅히 학생들에게 언문을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선에 그 나라 글자가 있는데 동양 각국의 글자 가운데 가장 간편하다. 만약 조선의 토민들이 그 나라의 글자를 이용하여 모두 그 편리함을 체득한다면 정치와 학정(學政)이 틀림없이 동양에서 으뜸이 될 것이다”라

9) 이기문, 위의 논문, 65쪽.

10) 《한성주보》, 1886년 2월 15일자. 정선태, 「근대 계몽기의 번역론과 번역의 사상」, 한기형(외), 『근대어·근대매체·근대 문학』(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6), 46-47쪽에서 재인용. 주간으로 발행하던 이 신문은 전신인 《한성순보》와는 달리 한문 기사 말고도 국한문 혼용과 때로는 순한글의 기사를 실어 한문을 모르는 독자들도 부분적으로 읽을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국민 계몽에 이바지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위의 인용문은 ‘사의’ 난에 ‘논학정제삼(論學政第三)’이라는 제목으로 순한문으로 실렸다.

는 서양 사람의 말을 인용하기도 한다.

서재필은 1896년 6월 2일자 《독립신문》 논설에서 출판사를 설립할 필요성과 함께 번역이 왜 필요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조선 같은 후진국이 문명 개화하는 데에는 출판사를 설립하여 외국 책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남의 나라에는 책 만드는 사람이 국중에 몇 천 명이요 책 회사들이 수업시 마니 있고 달마다 새 책을 몇 백 권씩 만드러내므로써 이 회사 사람들이 부자들이 되고 또 나라에 큰 사업도 되는지라. 조선도 이런 회사 하나가 생겨 각색 서양 책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출판하면 첫째는 이 책들을 보고 농사하는 사람들이 농법을 비홀 터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법을 비홀 터이요, 각 식 장색들이 물건 만드는 법을 비홀 터이요 관인들이 정치하는 법을 비홀 터이요, 의원들이 고명한 의술들을 비홀 터이요, 학교에 가는 사람들이 각국 사기와 산학과 지리와 천문학을 다 능히 비홀지라. 문명개화하는 데 이보다 더 훌륭한 사업은 업슬 터이요, 장사 속으로 보더라도 이보다 더 이(利)한 사업이 업는지라.<sup>11)</sup>

1897년 8월 5일자 논설과 마찬가지로 이 논설문도 번역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목을 끈다. 첫째, 서재필은 외국과 마찬가지로 조선에도 책을 출간하는 출판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도 미국이지만 그는 특히 일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창간하는 데 후쿠자와 유키치의 《지지신보(時事新報)》에서 큰 영향을 받았듯이, 그는 출판사를 설립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에도 후쿠자와한테서 영향을 받았다. 후쿠자와는 교순사(交詢社)라는 출판사를 직접 설립하였으며, 바로 이곳에서 유길준(兪吉濬)의 『서유견문』을 출간하였다.

둘째, 위 인용문에서 “조선도 이런 회사 하나가 생겨 각색 서양 책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출판하면”이라는 구절도 관심을 끈다. 서재필은 책을 출간하는 출판사를 설립하되 서양 책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내는 출판사였으면 좋겠다고 지적한다. 방금 앞에서 언급한 후쿠자와는 자신의 저서를 많이 집필하기도 하였지만 서양의 책

---

11) 《독립신문》, 1896년 6월 2일자.



을 많이 번역하여 출간하기도 하였다. 물론 그에 앞서 일본에서는 번역서들이 많이 출간되어 나왔다. 1774년 독일어에서 네덜란드어로 중역한 해부학 저서 『해체신서(解體新書)』를 번역한 것을 시작으로 서양의 저서를 번역한 책들이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많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일본에서 번역은 지리와 역사와 관련한 책은 말할 것도 없고 자연과학서에서 문학 작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야노 후미오(矢野文男)는 일찍이 번역서를 읽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역서독법(譯書讀法)』(1883)이라는 책을 출간할 정도였다. 이 책에서 그는 “이즈음 역서 출판이 성황을 이루어 그 권수가 몇 만에 이르니 한우충동(汗牛充棟)이 무색할 지경이다”<sup>12)</sup>라고 밝힌다. 그런데 1883년이라면 조선에서는 최초의 근대식 인쇄소라고 할 박문국을 설치하여 《한성순보》를 발행하기 시작하던 해이다.

셋째, 서재필은 위 인용문에서 “서양 책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출판”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못 박아 말한다. 1897년 8월 5일자 《독립신문》 논설에서는 ‘남의 나라 글과 말’이라고 막연하게 말하였지만 방금 위에 인용한 1896년 6월 2일자 논설에서 그는 ‘국문’으로 번역하여야 한다고 밝힌다. 국문으로 번역하여 출간할 대상 서적을 서양 서적으로 국한시킨다. 바꾸어 말해서 청나라나 일본 같은 동양 저서는 번역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서재필에게 청나라는 모방하여야 할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청산하여야 할 부끄러운 유산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아직 받고 있지 않은 19세기 말엽에 그가 무슨 독립을 부르짖느냐고 할는지 모르지만 그가 말하는 독립은 넓게는 중국, 좁게는 청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또 다른 글 「동양론」에서도 서재필은 “조선은 청국 학문을 비혼 식둑에 각식일이 청국과 갓흔 일이 만코 나라 형세가 청국과 갓흔니 엇지 섹고 분치 아니헝리요”라고 개탄한다. 그러면서 그는 “슬어도 구습을 버리고 문명진보하는 학문을 힘쓰며...”라고 밝힌다. 여기에서 ‘구습’이란 청국 학문을 뜻하고 ‘문명진보하는 학문’이란 다름 아닌 서양 학문을 가리키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본은 근년에 구습을 모다 버리고 태서 각국에 조흔 법과 학문을 힘 될여 비혼 식둑에 오날날 동양 안에 제일 강하고 제일 부요하며 세계에 디접 맞기를 기화흔 동등국으로 맞으니 치하할 만하고 증찬할 만하더라”고 지적한다.<sup>13)</sup>

12)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 가토 슈이치(加藤周一)(저)/임성모(역), 『번역과 일본의 근대』(이산, 2000), 57쪽.

후쿠자와와 마찬가지로 서재필한테도 학문이란 역시 서양의 학문을 뜻하였다. 후쿠자와는 『학문의 권장』에서 “학문이란 그저 어려운 글자를 알고 어려운 고전을 읽으며 와카(和歌)를 즐기고 시를 짓는 등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인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학으로 인간이면 상하기천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쌓아야 할 소양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힌다. 그러면서 “이러한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번역서를 조사하고 대개의 글은 일본의 가나(仮名)를 사용하고, 또 나아가 어렵도 학문에 재주가 있으면 서양 말을 배우도록 하며, 어떠한 과목이나 어떠한 학문이라도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sup>14)</sup> 생각해 보면 볼수록 서재필의 개화사상은 후쿠자와의 개화사상한테서 영향을 받은 바 무척 크다.

그러나 위 인용문에서 무엇보다도 관심을 끄는 것은 서재필이 번역이 필요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언급한다는 점이다. 번역서를 읽고 도움을 받을 사람으로 그는 아래로는 농사짓는 농부를 비롯하여 물건을 파는 상인과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공인에서 위로는 의술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에 이르기까지 두루 언급한다. 실제로 사회 계층과 영역을 총망라하고 있다시피 하다. 또한 새로 설립한 근대식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번역서를 통하여 세계 각국의 역사와 수학과 지리와 천문학 같은 학문을 두루 익힐 수 있다고 밝힌다.

위 인용문에서 서재필이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몰라도 농부를 언급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보일는지 모른다. 이 무렵 조선의 현실을 고려해 보면 번역한 책들을 보고 농사짓는 법을 배울 가능성이 실제로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재필이 조선의 산업 중에서 농업을 중시하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그가 농부를 언급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회 교화로 본 ‘신민(新民)’의 사명」이라는 글에서 서재필은 “우리 조선은 장래 엇더한 문화를 건설하게 된다더라도 우리 대중의 토대는 항상 농업에 잇슬 줄 맞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농(農)으로써 나라의大本(大本)을 세워야 할 것이다”<sup>15)</sup>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서재필은 시농공상을 포함한 모든 사회 계층과 남녀노소가 번역을 통하여

13) 《대조선독립협회회보》, 제6호, 1897년 2월 15일, 9~12쪽; 정진석(편), 『독립신문·서재필 문헌 해제』(나남, 1996), 117, 118쪽에서 인용.

14) 후쿠자와 유키치(저)/남상영·사사가와 고이치(역), 『학문의 권장』(소화, 2003), 24, 25쪽.

15) 《신민》, 통권 6호, 1925년 10월호; 정진석(편), 앞의 책, 157쪽.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번역을 통하여 서양 학문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서재필의 생각은 시간이 흐르면서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미국에 돌아간 뒤 1924년 《조선일보》 주필에게 쓴 편지에서도 그는 번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인민의 생활 상태 개량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신문지의 사명인 줄로 믿는” 서재필은 이 편지에서 서양의 농업과 과수업과 목축업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조선도 하루빨리 조상부터 물려받은 재래식 영농 방식을 버리고 서구의 방식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귀사에서 차등(此等) 산업 문제에 대하여 서적이 필요하다면 여(予)는 성심으로 어더 보낼 터이니 번역하여 조선 전국에 배포하기를 바라며 서적 가(價)는 실가대로 보내면 조흘 것이다”라고 밝힌다.<sup>16)</sup> 여기에서도 서재필은 번역이 문명개화와 근대화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역설하고 있다.

#### IV. 서재필의 의역 선호

서재필은 번역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번역가가 주의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비록 정교하게 이론으로 아직 체계화되지는 않았어도 번역 이론이나 방법론에 관한 그의 언급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의 번역관이나 번역 이론은 「조선에 대한 외국인의 오해」라는 글에서 엿볼 수 있다. 《조선일보》 주필이던 민세(民世) 안재홍(安在鴻)이 서재필에게 매월 한 편씩 글을 기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서재필은 1927년 2월 안재홍에게 기고문 한 편을 보내면서 답신을 쓴다.

귀지에 계취(擈取)한 내 신년사의 번역은 펍 잘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아조 조식이 달은 영어를 우리 조선어로 번역하는 것은 펍 어려운 일일 것이니 그러케 하려면 상식이 풍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역(意譯)을 하지 아니하고 자역(字譯)을 한다면 읽을 수 업게 될 것입니다.<sup>17)</sup>

16) 《조선일보》, 1924년 11월 23~25일자; 정진석(편), 위의 책, 140, 142쪽.

17) 《조선일보》, 1927년 3월 10~14일자; 정진석(편) 위의 책, 185쪽.

서재필은 위 인용문 첫 구절에서 《조선일보》에 실린 자신의 신년사를 ‘꽤 잘’ 번역하였다고 칭찬한다. 여기에서 ‘내 신년사’란 1927년 새해를 맞이하여 그가 이 신문과 《동아일보》에 기고한 “Let Us Face the New Year with a Smile”이라는 영문으로 쓴 글이다. 《조선일보》는 1927년 1월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글을 번역하여 「신년을 새맘으로 맞자」라는 제목으로 실었다. 한편 《동아일보》에서는 「신년을 당해야 고국 동포에게, 깃브라, 일하라, 배호라!」라는 제목으로 같은 해 1월 1일과 2일 두 차례에 걸쳐 연재하였다.

위 인용문에서 서재필이 번역 방법론이나 번역 이론과 관련하여 언급하는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번역은 ‘꽤 어려운’ 작업이라는 점이다. 서재필은 남의 나라 말을 모국어로 번역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었다. ‘완벽한 번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번역 이론가들이 적지 않다. 그리하여 일찍이 이탈리아에서는 “번역은 반역(traduttore, traditore)”이라는 격언이 널리 유행하였다. 이 격언대로 번역자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반역자’의 낙인이 찍히기 십상이다.

둘째, ‘기점 언어’인 영어와 ‘목표 언어’인 한국어는 서로 조직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조직’이란 언어의 통사 구조나 구문을 가리킨다고 보아 크게 틀리지 않다. 이러한 통사 구조나 구문의 차이는 비단 영어와 한국어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는 같은 계통에 속한 언어 안에서도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언어는 저마다 다른 언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나 구문을 지니게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가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기계 번역(MT)’이다. 기계 번역 연구자들은 그 동안 기점 언어의 구조와 목표 언어의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통사적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데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

셋째, 서재필은 한 언어 조직이 다른 언어의 조직이나 구조와 다른 만큼 번역을 잘 하려면 무엇보다도 상식이 풍부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상식’이란 허쉬(E. D. Hirsch)가 말하는 ‘문화적 독해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크게 틀리지 않다. 허쉬는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자를 독해하는 능력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책을 읽는 능력을 뛰어넘어 이제는 문화를 ‘읽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허쉬는 “문화적으로 문맹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곧 이 현대 세계에서 살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소유하는 것이

다”<sup>18</sup>)라고 잘라 말한다. 다시 말해서 독자는 저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연상의 체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허쉬가 말하는 문화적 독해 능력은 기점 언어를 목표 언어로 번역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기점 언어가 속해 있는 문화, 즉 ‘기점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목표 언어로 올바르게 번역할 수 없다. 언어란 문화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언어와 문화는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리하여 1980년대 말엽부터 이른바 ‘문화지향 번역 연구’가 부쩍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는 학자들은 텍스트를 번역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점차 문화를 번역한다는 생각으로 옮겨오기 시작하였다. 이 이론은 개별적인 어휘를 언어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전통적인 번역 방법론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메리 스넬-혼비(Mary Snell-Hornby)는 이러한 현상을 ‘문화적 선회’라는 용어로 불렀다.<sup>19</sup> 문화적 상황을 중시하는 이러한 번역 이론은 그 뒤 수전 배스넛(Susan Bassnett)과 앙드레 르페브르(André Lefevere)가 문화지향 번역으로 발전시킨다. 그리고 이 이론은 다시 유진 나이더(Eugene Nida)의 ‘역동적 동가성(dynamic equivalence)’ 이론으로 이어진다. 서재필의 주장은 텍스트와 상황 그리고 문화의 맥락에서 ‘관계망’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그들의 이론과 비슷하다.

넷째, 서재필은 의역(意譯)과 자역(字譯) 가운데에서 후자보다는 전자를 선호한다. 사실상 의역과 자역 또는 자유역과 직역을 둘러싼 문제는 번역에서 그 역사가 꽤 오래되었다. 동양과 서양을 가리지 않고 20세기 중반 이전까지 번역과 관련한 문제는 하나같이 이 문제에 관한 것이거나 이 문제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라고 하여도 크게 틀리지 않다. 조지 스타이너(George Steiner)가 『바벨탑 이후』(1975)에서 그 동안 이론가들이 이 문제를 두고 지나치게 ‘무익한’ 토론을 벌여 왔다고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가령 중국에서는 불교 경전을 번역하는 데 동한(東漢)과 삼국시대(三國時代), 즉 기원후 2~3세기에는 직역이 유행하다가 진(陳)나라와 남북조(南北朝) 시대, 즉 기원후 3~6세기에 이르러서는 의역이 성행하였다.

18) E. D. Hirsch, Jr., *Cultural Literacy: What Every American Needs to Know*(New York: Vintage Books, 1988), p. xiii.

19) Mary Snell-Hornby, *Translation Studies: An Integrated Approach*, rev. ed.(Amsterdam: John Benjamins, 1995), p. 35.

한편 서양에서도 직역과 의역의 문제는 번역가들 사이에서 큰 논란거리였다.

그러나 동양에서나 서양에서 서재필처럼 직역보다는 의역을 주장하는 번역가들이 압도적이었다. 예를 들어 기원전 1세기에 활약한 로마시대 웅변가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를 비롯하여 호라티우스(Quintus Horatius Flaccus)는 일찍이 의역을 찬성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힌다. 이 두 사람의 뒤를 이어 4~5세기 경 성(聖) 제롬(Saint Jerome)이 그리스어로 된 ‘70인역(譯)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역시 의역에 의존하였다. 이밖에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도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성 제롬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또한 17세기에 존 드라이든(John Dryden)은 글자 하나하나 시행 하나하나에 신경 쓰는 직역에 반기를 들고 의역을 주장하여 관심을 끌었다. 벤 존슨(Ben Jonson)의 축어적인 직역 번역에 대하여 그는 “마치 밧줄로 밧을 묶어 놓고 춤을 추는 것과 같은 일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sup>20</sup>고 개탄하였다.

## V. 서재필의 한국어 구사력과 번역투 문장

이상과 현실, 이론과 실제 사이에 흔히 괴리나 간극이 있듯이 서재필이 주장하는 번역 이론과 실제로 그가 쓴 글 사이에는 적잖이 차이가 난다. 서재필은 선각자답게 누구보다도 한글 전용과 함께 번역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면서도 실제 그의 번역 실력은 막상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가 한글로 쓴 글을 좀 더 꼼꼼히 읽어보면 여기저기에서 일본어나 영어를 서툴게 번역해 놓은 듯한 문장을 구사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여기에는 여러 까닭이 있을 터이지만 무엇보다도 서재필은 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어렸을 적부터 과거시험을 보기 위하여 한학을 공부하였을 뿐 근대식 학교에서 국어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물론 1885년 미국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Henry Appenzeller)가 서울에 배재학당(培材學堂) 같은 근대식 교육 기관을 설립하기 시작하였지만 서재필은 너무 일찍 태어난 탓에 그러한 서구식 근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 1885년이라면 서재

20) John Dryden, “Metaphrase, Paraphrase, and Imitation,” R. Schulte and J. Biguenet(eds.), *Theories of Translation*(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p. 19.

필이 미국에 망명하여 막노동을 하면서 영어를 배우던 시절이다. 이승만이나 주시경만 같아도 배재학당에서 서구식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어를 갖고 닦을 수 있었지만 서재필은 한학을 공부하다가 모국어 교육을 건너편 채 곧바로 외국어를 배웠다. 그러므로 그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서재필이 한국어 구사력이 부족한 데에는 모국어를 제대로 연마하기도 전에 일찍이 일본과 미국에서 공부하였다는 사실도 한몫을 하였다. 그가 일본에 처음 건너간 것은 1883년, 그러니까 지적 활동이 가장 왕성한 열아홉 살 때이다. 특히 게이오의숙에서 일본어 교육을 체계적이고도 집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본어 구사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다. 귀국 후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는 다시 일본을 거쳐 미국에 망명하여 이번에는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영어 말고도 라틴어와 희랍어 실력도 뛰어났다는 점은 앞에서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무렵 교과과정에 따르면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나 독일어 가운데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었다. 서재필의 외국어 실력과 관련하여 그의 종중손자인 서동성(徐東成)은 “영어는 제1외국어나 제2외국어도 아닌 제3외국어였다. 서재필의 제1외국어는 일본어였고, 제2외국어는 러시아어였으며, 영어는 제3외국어였다”<sup>21)</sup>고 밝힌 적이 있다.

이밖에도 서재필은 코크란 대학(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전신)에 재학할 때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공부하여 어느 정도의 독해 능력을 쌓았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이 무렵에도 의과대학의 교과 과정에는 이 두 외국어가 필수적이었다. 현봉학(玄鳳學)에 따르면 그와 관련한 이 대학의 기록에 ‘FR’나 ‘GE’ 같은 약자가 적어 있는 것을 보아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공부하였음에 틀림없다고 지적한다.<sup>22)</sup> 모국어와 다름없던 한문까지 넣는다면 서재필은 외국어를 무려 예닐곱 개나 구사하고 있던 셈이다. 언어 교육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외국어를 많이 구사하면 할수록 그만큼 모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재필의 한국어 구사력은 자연히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구어는 그런대로 구사할

21) 서동성, 「역자의 말」, 『한수의 여행』(보진재, 1979), 2쪽. 러시아어를 배웠다는 기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체류한 경험도 없는 서재필이 어떻게 러시아어를 제2외국어로 구사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서동성이 잘못 전해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2) 현봉학, 「서재필과 한국 민주주의」, 현종민(편), 앞의 책, 122쪽.

수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문어를 구사하는 실력은 여러모로 크게 모자랐다.

서재필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영어 구사 능력에 비하여 뒤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에서 돌아온 뒤 그가 강연을 하거나 연설을 할 때에는 주로 영어를 사용하였다. 글로 표현하는 문어에 이르면 그의 한국어 구사력은 더욱 떨어졌다. 신용하(愼鏞廈)는 《독립신문》이 서재필의 선각자적 결단과 민주주의 사상, 그리고 주시경의 민족주의 사상과 국문 연구의 합작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주시경은 당시 몇 사람 안 되는 국어 문법의 전문 연구자였다. 반면에 서재필은 국어와 국어 문법에 대해서는 빈약한 지식밖에 갖고 있지 못하였다”<sup>23)</sup>고 밝힌다.

그 동안 서재필을 부정적 시각에서 파악해 온 주진오를 비롯한 젊은 학자들도 서재필이 국어 구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주진오는 그러한 주장을 펴는 근거로 독립협회의 회장을 지낸 윤치호(尹致昊)가 1893년 8월 14일 일기에 적은 글을 든다. 즉 윤치호는 “서재필이 쓰거나 말하기 모두에 걸쳐 모국어를 거의 잊어 버렸다는 점에 놀랐다”<sup>24)</sup>고 기록하였던 것이다. 또 이 일기에서는 서재필이 신문 발간하면서 윤치호에게 영문 번역 업무를 맡아 줄 것을 제안하였다는 대목도 나온다. 그리하여 주진오는 서재필이 영문판 논설은 몰라도 적어도 국문판 논설은 직접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sup>25)</sup>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적잖이 무리가 따른다. 아무리 10여 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하였을지라도 스무 살이 넘어 망명한 사람이 모국어를 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의 모국어 구사력이 부족하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23) 신용하, 『독립협회 연구』(일조각, 1976), 20쪽.

24) 국사편찬위원회(편), 『윤치호 일기: 1893~1894(3)』(국사편찬위원회, 1974), 149쪽. 이 일기에서 윤치호는 서재필이 구어와 문어 모두 모국어를 거의 전적으로 잊어 버렸다고만 언급할 뿐 그러한 사실에 “놀랐다”고는 적지 않았다.

25) 주진오, 「서재필 자서전」, 『역사비평』, 1991년 가을호, 303쪽, 주진오, 「서재필: 민족을 떠난 근대 주의자」, 『내일을 여는 역사』, 제13호(2003.9), 208~224쪽. 서재필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나 사실을 바로잡는 이 글에서 주진오도 몇 가지 오류를 범한다. 그 중 하나는 “[서재필이] 그 후 1925년에도 양탄자를 취급하는 이탄 뉴 회사(Ithan New Company)의 사장을 맡고 있었다고 한다”(306쪽)라는 진술이다. ‘이탄 뉴 회사’가 아니라 미시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류일한(柳一韓)과 함께 설립한 무역회사 ‘일한뉴회사(Ilhan New & Company)’이다. 1925년 4월에 설립한 이 회사는 사업이 되지 않아 곧 문을 닫았다.



서재필이 쓴 글은 1895년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마치고 첫 번째로 귀국하여 활동한 시기를 분수령으로 삼아 크게 두 시기로 나뉜다. 제1기에 쓴 글은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결성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한 시기에 집필한 것이고, 제2기의 글은 1898년 5월 이리저리한 이유로 고국을 떠나 다시 미국에 건너간 뒤에 쓴 것이다. 제1기에 글은 영어 잡지 《코리안 리포지토리(Korean Repository)》에 실린 두 편의 글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글로 집필한 반면, 미국에 건너가서 쓴 글은 1898년 11월 16일과 17일자 《독립신문》에 실린 「제손 씨 편지」 한 편을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영어로 쓴 글이다. 그러므로 1899년 이후에 쓴 글은 모두 영어로 쓴 글로 보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서재필은 1924년 초에 《동아일보》에 기고한 「개인주의와 협동주의, 조선 민족에게 중요한 각건사(喫緊事)」라는 글에서 “여는 조선문으로 써보라고도 하얏스나 당하여 본즉 여의 조선어 논문 쓰기에 넘어 부족함을 깨달았나이다”<sup>26)</sup>라고 밝힌다. 이렇게 그는 한국어 구사력이 부족하여 하는 수 없이 영어로 글을 쓸 수밖에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어를 번역해 놓은 듯한 번역투의 서툰 문장을 엿볼 수 있는 곳은 두말할 나위 없이 서재필이 한글로 쓴 제1기의 글들이다. 그의 글 곳곳에서 특히 일본어투의 문체를 그다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독립신문》 제2권 제92호에 실린 논설은 이러한 경우를 보여 주는 좋은 예로 꼽을 만하다.

조선 사람들이 대개 완고하여 조흔 것이라도 남의 것은 본 밧기를 조아 아니 하고 조선 것 직히기를 질거워하나 글에 당하여서는 조흔 조선 글은 내버리고 중국 글을 괴어히 배화 그 글을 쓰기를 숭상하니 매우 이상한 것이라.<sup>27)</sup>

위 인용문에서 밑줄 친 세 부분은 아무래도 일본어 문장을 번역해 놓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강(大綱)’이나 ‘일반적인 경우에’를 뜻하는 부사 ‘대개’는 한국어에서도 사용하지만 주로 일본어에서 사용하는 ‘타이가이(大概)’를 빌려다 쓰는 표현이다. “조선 것 직히기를 질거워하나”라는 구절은 “朝鮮のだけ守るのを楽しむか”<sup>28)</sup>를 옮겨놓은 것이고, “글에 당하여서는”이라는 구절은 “文に当しては”<sup>29)</sup>를 옮겨놓

26) 《동아일보》, 1924년 2월 26일자; 정진석(편), 앞의 책, 135쪽.

27) 《독립신문》, 제2권 제92호, 1897년 8월 5일자.

은 것이다. 첫 번째 구절의 경우 “지키기를 즐거워한다”고 말하기보다는 “지키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이 한국어의 어법이요 관습이다. 두 번째 경우 또한 “글에 당하여서는”보다는 “글에 대해서는”이라고 말하는 쪽이 좀더 우리말답다.

이러한 일본어를 번역한 표현은 독립협회의 기관지 《대조선독립협회회보》 제1호와 제2호에 실린 「공기」라는 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 고로 묵어온 쇠덩이를 대양 속에 지병 던지면 그 쇠덩이가 물 맞히 내려가  
 지를 아니하고 얼마큼 내려가다가 물에 쏘니 그겨슨 다름이 아니라 물이 내려  
 놓으는 힘이나 우회로 치맛치는 힘이나 맛찬가진 고로 그덩이 목에 더로논 가란  
 다가 그맞히서 치맛치는 물에 힘이 그 목에보다 더흔 식둠에...28)

밑줄 친 “그겨슨 다름이 아니라”라는 표현은 일본어 “それはほかではなく”를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것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 표현은 뒤에 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인들이 유난히 자주 사용한다. 그런데 이 표현은 “be none other than”을 비롯하여 “be no more than”, “be nothing but”, “be nothing less than” 등 영어에서도 자주 사용한다. 서재필은 위 인용문 바로 다음에서도 “돌보다 더디 썩러지니 그 이치는 다름이 아니라 돌몽이가 공중으로 올라갈 썩에는...”이라고 말한다. ‘다름(이) 아니라’는 한국어에서도 흔히 ‘다른 까닭이 있는 게 아니라’ 또는 ‘다른 게 아니라’를 뜻하는 관용구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일본어 냄새가 풍긴다. 또한 서재필은 “도리는 다른 덕 있지 아니 하고 인민들의게 있는지라”29)는 문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쓰기도 한다.

‘다름이 아니라’는 표현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서재필이 사용하는 어떤 표현은 일본어를 번역해 놓은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다. “백배나 나흔 국문을 내버리고 어렵고 세상에 경계 업시 든 청국 글을 배화 그걸 숭상하기를 조아 하니 대단히 우습고 개탄할 일이더라”30)는 문장은 그러한 예로 꼽을 수 있다. 여기에서 ‘세상에 경계 업시’라는 표현은 일본어 표현 ‘裏面境界もなく’ 또

28) 《대조선독립협회회보》, 제1호, 제2호, 1896년 11월 30일, 12월 5일자; 정진석(편), 앞의 책, 113쪽.

29) 《독립신문》, 1898년 11월 16일, 17일자; 정진석(편), 위의 책, 124쪽.

30) 《독립신문》, 제2권 제92호, 1897년 8월 5일자.

는 ‘裏面境界も分からない’를 조금 바꾸어 옮긴 것이다. ‘이면경계’란 일의 내용의 옳고 그름을 뜻하며, ‘이면경계 없이’란 어떠한 일의 내용이나 옳고 그름 따위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처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면’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그냥 ‘경계’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서재필은 ‘이면’이라는 말 대신에 ‘세상에’라는 부사를 사용하여 강조하였다.

이러한 일본어 번역투 문장은 서로 대조되는 상황을 기술하는 ‘일변으로는~, 또 일변으로는~’이라는 표현에서도 좀 더 뚜렷이 엿볼 수 있다.

일전 비판에 온 독립신문을 본즉 일변으로는 슬프고 또 일변으로는 기쁜 것이 몇 빅년을 두고 대한 인민이 쇼위 관인이라 하는 사립들을 모도 성인군조로 밋고 자그들의 목숨과 직산과 부모형데 처즈의 목숨과 직산을 관인들의게 부탁하여...31)

인용문은 서재필이 1898년 5월 미국에 돌아간 뒤 같은 해 11월 《독립신문》에 보낸 「제순 씨 편지」라는 글 첫머리에서 따온 것이다. 밑줄 친 “일변으로는 슬프고 또 일변으로는 기쁜 것이”라는 표현은 한국어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일본어에만 있다. 일본어에서는 “一邊では悲しくまた一邊では嬉しくて”라고 한다. 물론 ‘一邊では’ 대신에 ‘一方では’라고도 한다. 한편 중국어에서는 ‘일경일희(一驚一喜)’ 또는 ‘차경차희(且驚且喜)’라는 관용어를 사용한다. 그런가 하면 영어에서는 “on the one hand~and on the other (hand)~”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한편 서재필은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를 서툴게 번역해 놓은 듯한 문장을 구사하기도 한다. 흔히 「충신과 역적」으로 일컫는 《독립신문》 1896년 4월 11일자 논설은 이러한 경우를 보여 주는 좋은 예로 꼽힌다.

흔번 이런 죄를 짓거드면 양화와 벌이 다만 즈기 몸에만 밋칠 썬만 아니라 부모형데 처즈가 다 화를 님을 터이니 이거슬 심각하면 범법후에 리익업는 거슬 깨달을 거시라...충신이 된다고 님군의 아침하야 님군의 성의를 어둡게 하고 법에 범한 일을 가만히 항하는 자는 다만 즈기 몸에 양화를 장만할 썬

31) 《독립신문》, 1898년 11월 16일, 17일자; 정진석(편), 앞의 책, 123쪽.

아니라 동포 형제의게 혀를 맞치게 하는 거시니 그런 사람은 반드시 역적이라  
 홀 문홀 사람이니라.<sup>32)</sup>

위 인용문에서 밑줄 친 부분 첫 번째 구절과 마지막 구절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영어 표현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을 한국어로 옮겨놓은 것이다. 그런데 서재필은 ‘only’를 강조하여 이 표현을 사용할 때면 언제나 ‘다만’이라는 부사를 빼놓지 않고 꼬박꼬박 적는다. 이러한 예는 그의 글에서 하나하나 꼽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많다. 가령 이 인용문 다음에서도 그는 “다만 슈족에만 유익홀 쏘만 아니라 전신이 충실하며 강홀 터이니...”라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공기」에서도 “공기는 다만 잠깐만 업서도 우리가 모도 죽을 터인즉 공기가 엇지 음식이나 의복에서 더 중치가 아니 흐리요”라고 말한다.

위 인용문에서 밑줄 친 두 번째 구절 “리익업는 거술”이라는 표현도 영어 번역투라는 인상을 풍기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구절은 “the fact that there is no profit”라는 영어 표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리익업는 거술”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득이 없는 것을”이라고 말하는 쪽이 한국어답다. 물론 “아무 쓸모없는 것을”이니 “아무 소용없는 것을”이니 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을”이니 하고 말하면 훨씬 더 우리말답고 자연스럽다.

한편 위 인용문에서 “법에 범한 일을 가만히 행하는”에서 ‘가만히’는 ‘남이 모르게 살그머니’라는 일반적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뜻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 이 문장에서 서재필은 ‘가만히’라는 부사를 아무래도 ‘아직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등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는 영어 부사 ‘still’을 ‘가만히’라는 한국어로 옮겨놓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법에 범한 일을 가만히 행하는 자는”이라는 표현은 “the person who performs still what he violated in law”라는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옮겨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인용문에서 밑줄 친 마지막 구절 “다만 즈기 몸에 양화를 장만홀 쏘 아니라”라는 표현은 이 점을 더욱 뒷받침한다. 방금 앞에서 밝혔듯이 서재필은 이 인용문에서 “not only A, but also B”의 구문을 사용할 뿐더러 또한 ‘양화를 장만할’이라는 이상야릇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한국어에서는 ‘음식을 장만할’이나 ‘살

32) 정진석(편), 위의 책, 108쪽.

림 도구를 장만할'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여도 '양화를 장만할'이라는 표현은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서재필이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bring calamity upon oneself"나 "bring disaster upon oneself"라는 영어 표현을 한국어로 서툴게 번역해 놓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영어 표현을 서툴게 한국어를 번역해 놓은 문장은 《대조선독립협회회보》 제6호에 실린 「동양론」이라는 글에서도 쉽게 엿볼 수 있다.

지금 만주와 요동이 아라샤 손 속에 들었고 청국 남방 지방을 불란서에 썩기고 일본하고 싸움하야 세계에 망신을 하고 조선을 일혀 버리며 덕만을 일본에 썩기고 또 년전에 유구국을 일본에 썩기며 전국 형세가 대단히 위태하게 되얏스나 청국 정부 안에서는 밤낮 협잡이요 구습을 바리지 못하야...<sup>33)</sup>

밑줄 친 부분 “지금 만주와 요동이 아라샤 손 속에 들었고”에서 ‘손 속에 들었고’는 아무래도 영어 표현을 번역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영어로 “fall into the hands of~”라고 하면 “~의 수중(手中)에 들어가다”나 “~의 손아귀에 맡겨지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손을 복수형으로 사용하면 흔히 소유, 관리, 지배, 감독, 보호 등의 의미로 쓰인다. 가령 “He fell into the enemy’s hands”는 “그는 적의 손에 잡혔다”라는 뜻이고, “My fate is in your hands”는 “내 운명은 네 손 안에 있다”는 뜻이다. 물론 한국어에서도 “다른 사람의 수중(手中)에 넘어가다”나 “그 진지는 적의 수중에 떨어졌다”니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일본어에서도 이 표현을 “手の中に入ったし”라고 한다.

그러나 서재필이 “수중에 넘어갔다”나 “수중에 떨어졌다”고 하지 않고 굳이 “손 속에 들었고”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영어 표현을 번역한 것으로 보아 크게 틀리지 않다. 역시 「동양론」에서 “동양에 즉주 독립하는 부강한 나라히 되라면 될 권리가 조선 사람의 손 속에 잇더라”<sup>34)</sup>는 문장을 보면 좀더 분명해진다. 이때 ‘손 속에 잇더라’는 수중에 넘어갔거나 수중에 떨어진 것과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 영어 관용어 표현 “in one’s hands”를 번역한 것으로 “within one’s power”나 “be

33) 《대조선독립협회회보》, 제6호, 1897년 2월 15일; 정진석(편), 위의 책, 117쪽.

34) 위 글, 118쪽.

at the mercy of” 또는 “be in the possession of”와 같거나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영어를 번역해 놓은 듯한 문장이 가장 뚜렷이 드러나 있는 곳은 1898년 5월 초 서재필이 자신의 ‘추방’과 관련하여 쓴 「만민공동회에 한 답장」이다.

내가 수이 떠나감을 제공이 창연히 싱각<sup>35</sup>도 쏘흔 감사<sup>35</sup>한 일이나 나의 스 정을 제공들이 자셔이 이지 못흔 연고로 나의 감을 만류코자 <sup>35</sup>헝심이라...체면 과 사세에 불가불 갈 밧기 수가 업습고 내 죠종의 분묘와 종족과 친척을 떠나 가는 것은 나의 샤샤일이라 타인의게 관계 없는 일이요.<sup>35</sup>

밑줄 친 세 부분 “떠나감을”과 “나의 감을” 그리고 “떠나가는 것은”이라는 표현은 영어 ‘going (away)’나 ‘leaving’을 한국어로 직역해 놓은 것이다. 한국어 어법에 맞게 표현하려면 앞의 두 표현은 “떠나가는 것을”이라고 하여야 한다. 마지막 표현도 “(친척한테서) 떠나가는 것은”이나 “(친척과) 헤어지는 것은”이라고 하여야 한국어다운 표현이다.

더구나 밑줄 친 두 번째 부분 “나의 감을”은 영어 “my going (away)”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이 문장은 영어 표현뿐만 아니라 일본어 표현을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어에서는 종속절의 주격조사의 경우 ‘が’ 대신에 소유격 조사 ‘の’를 사용한다. 일본어 교육을 받은 세대들은 아직도 주격조사 ‘가’를 쓸 곳에 ‘의’를 쓰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가령 신약성경의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마태복음」 6장 3절)만 하여도 일본어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다. 즉 “오른손이 하는 것을”이라고 하여야 할 것을 일본어 표현 “右手のすること”를 그대로 “오른손의 하는 것을”이라고 번역하였다. 그렇다면 서재필의 글에서 “나의 감을”은 “私の立ち去ることを”라는 일본어를 번역해 놓은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서재필이 친척들이나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을 영어식으로 ‘떠나감’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번에는 ‘분리한다’는 영어식 표현을 구사하기도 한다.

35) 《매일신문》, 1898년 5월 4일자; 《독립신문》, 1898년 5월 5일자; 정진석(편), 앞의 책, 119쪽.

대한에 그동안 사귀 친구가 만히 잇서 먼목은 모르드려도 막음으로는 서로 친  
흔디 지금 분리하게 되오니 섭섭흔 막음은 일우 형용하여 기록할 슈 업스나  
이 사사정리로 하여 대한과 미국정부 총디흔 관원들의게 란편하고 체면에 수  
통함을 끼칠 수가 업는 일이오.<sup>36)</sup>

위 인용문에서 밑줄 친 “분리하게 되오니”에서 ‘분리하다’는 영어 ‘separate’나 ‘part’를 직역해 놓은 표현이다. 대한제국에 돌아와 사귀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어 무척 섭섭하다는 뜻이다. 이 두 영어는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지만 좀 더 엄밀히 구분하여 말한다면, 전자는 원래 서로 붙어 있거나 엉켜 있던 것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 강한 반면, 후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물건이 서로 갈라진다는 뜻이 강하다. 서재필이 전자의 어휘를 염두에 두었던 후자의 어휘를 염두에 두었던 영어를 한국어로 직역해 놓은 것임에는 틀림없다. 한국어에서는 친한 친구와 헤어지는 것을 ‘분리한다’는 어휘로써는 좀처럼 표현하지 않는다. 이렇게 영어를 어색하게 직역하여 사용하는 것은 「제순 씨 편지」에서도 드러난다.

쥬인이 변하여 로예가 되어 몇 빅년을 지니다가 홀연히 그 가련흔 사정을 깨  
닫고 도로 쥬인의 권리를 차지라 혼즉 쥬인에 권리를 빼앗겼던 사환들이 죠와  
아니하여 아모죠평 전과 궂치 자기들이 쥬인 노릇하라고 홀 것은 어둡고 더러  
운 인심에 자연흔 일이라.<sup>37)</sup>

밑줄 친 “어둡고 더러운 인심에 자연흔 일이라”에서 ‘자연흔 일’은 그 뜻을 알아차리기 무척 어렵다. 그도 그럴 것이 ‘natural’이라는 영어를 서툴게 번역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 영어는 일차적으로는 ‘자연(계)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자연에 관한’ 등을 뜻하지만, 이차적으로는 ‘자연 그대로의’, ‘가공하지 않은’ 또는 논리적으로나 인정에서 ‘당연한’, ‘마땅한’이라는 뜻이다. 특히 서재필은 “It is natural for~to~” 또는 “It is natural that~”이라는 구문을 한국어 번역해 놓은 듯하다. 이 경우 일본어에서도 흔히 ‘自然な’라고 사용하고 있어 일본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어둡고 더러운’이라는 표현도 영어 관용어

36) 정진석(편), 위의 책, 120쪽.

37) 《독립신문》, 1898년 11월 16일, 17일자; 정진석(편), 위의 책, 124쪽.

‘dark and dirty’라는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보아 크게 틀리지 않다. 인심은 ‘더러울’ 수 있지만 ‘어두울’ 수는 없을 것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영어 ‘dark’는 ‘어두운’이라는 뜻 외에 ‘뻘속 검은’, ‘음흉한’, ‘흉악한’ 등의 뜻을 지닌다.

이밖에도 서재필은 곳곳에서 영어를 번역해 놓은 듯한 문장을 구사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모르는 거슨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살 슈가 엮는 거시오”<sup>38)</sup>라는 문장에서 ‘우리가 모르는 거슨’은 영어 ‘what we do not know’를 직역해 놓은 것이다. 두 번째 사용하는 ‘우리가’도 영어식 문법이고 한국어에서는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그 못된 사환들이 변하야 심실흔 사환들이 될 것은 의심업시 아닌 일이라”<sup>39)</sup>는 문장에서 ‘의심업시 아닌’은 ‘undoubtedly know’나 ‘no doubt be aware of’라는 영어 표현을 옮겨놓은 것이다. “사환들을 조속하야 인민의게 유익하고 국가 명예와 영광에 유조흔 스업문 하게 하면”에서도 ‘사업’은 영어 ‘business’를 번역한 말이다. “그 돈 너은 사름들과 그 사름들의게 달린 사름들을 위하야 스무를 하라 홀 터이니”<sup>40)</sup>나 “문명진보 하는 나라에서들은 인민 교혹을 제일 스무로 아는지라”<sup>41)</sup>나 하는 문장에서 ‘스업’이나 ‘스무’도 마찬가지이다. 이 두 경우 모두 ‘일’로 표현하는 것이 좀더 한국어다운 것이다.

## VI. 맺는말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 같은 동아시아에서 근대화는 번역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번역과 근대화는 떼려야 뗄 수 없을 만큼 서로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리하여 중국의 근대화와 관련하여 중국계 미국 학자 리디아 류(Lydia H. Liu)는 아예 ‘번역한 근대(translated modernity)’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sup>42)</sup> 중국에서 근대화라는 기관차는 번역이라는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였

38) 「공기」, 정진석(편), 위의 책, 114쪽.

39) 「체순 씨 편지」, 정진석(편), 위의 책, 124쪽.

40) 위의 글, 124쪽.

41) 「공기」, 정진석(편), 위의 책, 110쪽.

42) Lydia H. Liu, *Translingual Practice: Literature, National Culture, and Translated Modernity - China, 1900-1937*(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pp. 27-42.



다는 것이다. 중국의 근대화를 번역과 관련지은 류의 지적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과 한국의 근대화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 이러한 사정은 중국이나 일본과는 조금 다르다. 그 동안 쇄국 정책을 실시해 온 한국은 시기적으로 볼 때 이 두 나라보다 뒤늦게 근대화의 빗장을 열어젖혔다. 또한 서양 문물을 직접 ‘수입’하지 않고 일본과 중국을 거쳐 간접적으로 이입하였다는 점에서도 한국은 이 두 나라와는 큰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한국의 경우에는 ‘번역한 근대’보다는 ‘중역한 근대(re-translated modernity)’라는 용어가 더욱 잘 어울릴 것이다. 왜냐하면 근대 계몽기 한국에서는 서양 문헌을 원문에서 직접 번역하지 않고 일본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중역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문에서 직접 번역한 것이건 일본어 번역이나 한어 번역을 중역한 방법이건 번역을 통하여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앞당겼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이나 일본에서처럼 한국에서도 번역이 근대화나 문명개화에 끼친 영향은 무척 크다.

근대 계몽기 선각자로서의 서재필의 위치는 누구보다도 앞서 번역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는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번역만큼 “문명개화하는 데 이보다 더 훌륭한 사업은 업슬 터이요, 장사 속으로 보더라도 이보다 더 이(利)한 사업이 업는지라”는 그의 주장은 19세기 말엽 근대 계몽기는 말할 것도 없고 흔히 정보화 시대로 일컫는 지금에 이르러서도 아직도 유효하다. 1895년 캐나다 선교사 제임스 게일(James S. Gale, 奇一)이 존 번연(John Bunyan)의 작품을 번역한 『턴료력딩』은 접어두고라도 이 무렵 서양의 역사책들이 우후죽순처럼 번역되어 나오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교육과학기술부 편수국에 해당하는 학부(學部) 편집국과 몇몇 출판사에서는 『영국사요(英國史要)』를 비롯하여 『태서신사(泰西新史)』, 『중일약사(中日略史)』, 『중동전기(中東戰記)』, 『미국독립사(美國獨立史)』, 『만국역사(萬國歷史)』 같은 역사서를 번역하여 출간하였다. 이렇게 역사서가 많이 번역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앞서 외국의 역사를 먼저 알고 싶은 욕구 때문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도태, 『서재필 박사 자서전』. 서울: 을유문화사, 1972.
- 서재필(저)/서동성(역), 『한수의 여행』. 서울: 보진재, 1979.
- 신용하, 『독립협회 연구』. 서울: 일조각, 1976.
- 이기문, 「《독립신문》과 한글 문화」. 현종민(편), 『서재필과 한국 민주주의』.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46~66쪽.
- 이정식, 『구한말의 개혁·독립투사 서재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정선태, 「근대 계몽기의 번역론과 번역의 사상」. 한기형(외), 『근대어·근대매체·근대 문학』.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6, 43~66쪽.
- 정진석 편, 『독립신문·서재필 문헌 해제』. 서울: 나남, 1996.
- 주진오, 「서재필 자서전: 유명인사 회고록 왜곡 심하다」. 『역사비평』 1991년 겨울호, 297~307쪽.
- 주진오, 「서재필: 민족을 떠난 근대주의자」. 『내일을 여는 역사』 제13호, 2003, 208~224쪽.
- 현종민(편), 『서재필과 한국 민주주의』.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가토 슈이치(加藤周一)(저)/임성모(역), 『번역과 일본의 근대』. 서울: 이산, 2000.
-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저)/남상영·사사가와 고이치(역), 『학문의 권장』. 서울: 소화, 2003.
- Dryden, John, "Metaphrase, Paraphrase, and Imitation." R. Schulte and J. Biguenet(eds.), *Theories of Transl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 Hirsch, E. D., Jr., *Cultural Literacy: What Every American Needs to Know*. New York: Vintage Books, 1988.
- Jaisohn, Philip, *My Days in Korea and Other Essays*. Sun-pyo Hong(ed.),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99.
- Liem, Channing, *Philip Jaisohn: The First Korean-American—A Forgotten Hero*. Elkins Park, Pa: Philip Jaisohn Memorial Foundation, 1984.
- Liu, Lydia H, *Translingual Practice: Literature, National Culture, and Translated Modernity—China, 1900~1937*.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 Snell-Hornby, Mary, *Translation Studies: An Integrated Approach*. rev. ed., Amsterdam: John Benjamins, 1995.

### 국문 요약

근대 계몽기에 활약한 대표적인 선각자 중의 한 사람인 서재필은 한문 대신에 한글을 사용할 것을 주창하였을 뿐만 아니라 번역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근대화를 앞당기고 문명개화하는 데 번역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독립신문》을 비롯한 매체를 통하여 번역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가 이렇게 번역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일본 유학 시절 성경을 번역하던 미국 선교사를 돕고 일본 메이지 유신을 이끈 계몽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 망명 중 미 육군 군의감 도서관에서 중국과 일본의 의학서를 분류하고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이다. 또한 서재필은 번역 방법론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직역(축자역)보다는 의역(자유역)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지적하였다. 기점 언어와 목표 언어의 통사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문을 자국어로 직역하여 옮겨놓으면 뜻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제대로 모국어 교육을 받지 않은 탓에 서재필의 한국어 구사력은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그는 여러 글 곳곳에서 일본어와 영어를 서툴게 번역해 놓은 듯한 문장을 구사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재필은 후쿠자와처럼 서양 문헌을 자국어로 번역할 것을 주창함으로써 문명개화를 이룩하고 근대화를 앞당기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 투고일 : 2009. 1. 5.                      ● 수정일 : 2009. 2. 28.                      ● 게재일 : 2009. 3. 12.
- 주제어(keyword) : 서재필(Philip Jaisohn), 번역과 근대(translation and modernity), 번역한 근대(translated modernity), 의역(free translation), 직역(literal translation).